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 공관복음의 학문적 영성적 읽기를 통해서
10월 24일 강의 계획서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

| | |
|---|--|
| 일 | 예루살렘 입성 ☞ 성지주일 |
| 월 | 성전 정화 ☞ 성주간 월요일 |
| 화 | 유다지도자들과의 논쟁 ☞ 성주간 화요일 |
| 수 | 사랑의 향유사건과 사랑의 배반사건 ☞ 성주간 수요일 |
| 목 | 파스카 준비일 그리고 파스카 만찬 ☞ 성주간 목요일 |
| 금 | 십자가의 길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 ☞ 성주간 금요일 |

유다 지도자들과의 논쟁(성주간 화요일)

첫 번째 논쟁: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들을 할 권한을 주었습니까?”(마르 11,28 직역)

두 번째 논쟁: “황제에게 주민세를 바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가 바칠까요, 바치지 말까요?”(마르 12,14)

세 번째 논쟁: “일곱 형제와 결혼한 여인이 부활할 때 그 여인은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모두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았으니 말입니다.”(마르 12,23)

네 번째 논쟁: “선생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어떤 것입니까?”(마르 12,28-34; 마태 22,36)

다섯 번째 논쟁: “다윗 자신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마르 12,37)

사랑의 향유사건과 배신사건(성주간 수요일)

1. 사랑의 향유사건

예수님께서 베타니아 마르타의 집에 제셨을 때였다. 예수님께서서는 음식

상을 받고 제셨는데 마리아가 값비싼 순 나르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그분의 머리에 부었다.(마르 14,3 강사 의역)

- (1) 옥합이 아니라 알라바스트로스(ἀλάβαστρος) 단지
- (2) “옥합을 깨뜨려”
- (3) “순 나르드 향유”



- (4) 옥합을 깨어 순 나르드 향유 전부를 예수님 머리에 드린 행위가 갖는 의미들
 - ① 예수님을 향한 아낌없는 사랑
 - ②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곧 임금으로서 대접
 - ③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기념
- (5) 이 향유 사건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
- (6) 제자들의 반응

그러자 어떤 이들은 제 탄에 언짢아했다. "왜 이렇게 향유를 낭비하는가?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 이상 받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리고 그 여자에게 화를 내는 것이었다. (마르 14,4-5)

- (7)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

“이 여자를 가만 두어라. 왜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마르 14,6)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잘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마르 14,7)

2. 사랑의 배반사건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수석 사제들에게 팔아넘기려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마르 14,10-11)

- (1) 유다(Ἰούδας)란 이름은 히브리 이름 예후다(יהודה)에서
- (2)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대가로 받은 돈의 양: 은화 30냥/30세켄
- (3) 왜 사랑의 배반사건이라고 하는가?
 - ①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열두 제자로 뽑힘
 - ② 열두 제자들 중에서 재물로 뽑힘
- (4)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요일에 단식했던 이유
- (5) 유다의 배반행위와 관련되어 나오는 불경스런 질문들
- (6) 유다가 구약성경의 예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주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시켜 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들은 은돈 서른 닢, 값어치가 매겨진 이의 몸값, 이스라엘 자손들이 값어치를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 주님께서서 나에게 분부하신 대로 옹기장이 밭 값으로 내놓았다.”(마태 27,9-10)

휘나 플레노씨(ἵνα πληρωθῆ “[성경 예언말씀이] 이뤄지기 위하여”
(마태 2,14-15; 2,23)

토타 애플레로씨(τότε ἐπληρώθη “그 때에 [성경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마태 2,17; 27,9)

- (7) 유다가 스승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
 - ① 성서가 제공하는 표면상의 이유 두 가지
 - ㉠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배반의 마음을 심었기에
(루카 22,3; 요한 13,2)
 - ㉡ 유다가 돈을 탐냈기에(요한 12,6; 참조 마태 26,15)
 - ② 학자들이 제시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견해들
 - ㉠ 예수님의 사명 수행을 돕고자
 - ㉡ 예수님에 대한 환멸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압박하고자

최후만찬(성주간 목요일)

A. 파스카 만찬 준비(성 목요일 낮 시간)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께

서 잠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커다란 다락방을 보여 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 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마르 14,12-16)

1. 무교절(無酵節)과 파스카 축제

- (1)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
- (2) 무교절과 파스카의 차이
 - 무교절은 파스카 만찬과 함께 시작되어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축제
 - 파스카는 니산월 15일 하룻밤 만찬으로 끝나는 축제

2.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를 따라가서

- (1)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

3. 다락방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커다란 다락방을 보여 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 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마르 14,15-16)

- (1) 다락방(ἀνάγαιον) = 상층방 거실
- (2) 다락방, 곧 상층방의 주인은 요한 마르코의 아버지

B. 최후만찬(성목요일 저녁 시간)

1. 배반자에 대한 예고

[파스카가 시작되는] 저녁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셨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가 “저는 아니겠지요, 스승님?”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마르 14,17-18; 마태 26,21-25)

- (1) “앉다”를 가리키는 그리스 동사: 아나케이마이(ἀνάκειμαι)
- (2) 배반자에 대한 예고
- (3) “저는 분명 아니겠지요, 스승님?”

2. 새 계약(新約)을 맺으시고 성체성사를 제정하심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마르 14,22-24)

- (1) “내 계약”은 “새 계약”을 가리킨다
- (2) 파스카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
- (3) 옛 계약(구약)을 새 계약(신약)으로 대치 완성하시는 주님
 - ① 계약이란 단어보다 맹세란 단어가 더 의미론적으로 맞다
 - ② 옛 계약(구약)은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후손들과 이뤄졌다
 - ③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해서 갱신되어 왔다
 - ④ 하느님을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 새 계약(신약)을 약속하셨다
 - ⑤ 신약은 예수님에 의해서 드디어 제정되신다
 - ⑥ 왜 예수님은 피를 흘리심으로써 신약을 제정하시는가?
- (4) 성체성사는 일치의 성사
- (5) 일치의 성사가 분열과 대립의 원인이 됨
 - “이는 내 몸이다”와 “이는 내 피다.”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인가(가톨릭과 루터교)
 - 상징적으로 이해할 것인가(루터교를 뺀 개신교)
 - 문자적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
 - 성서학자 스콧 한(Scott Hahn) 박사의 개종 동기
- (6) 성체성사가 내포하는 영성
 - ① 왜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가?
 - 우리를 사랑하기에
 - 우리의 밥이 되고 싶어서

-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싶어서

② 미사에 참석하는 우리의 태도: 온 마음, 온 영혼, 온 정신을 다해서

C. 깨지기 쉬운 반석: 베드로의 배반에 대한 예고

[파스카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모두 걸려 넘어질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마르 14,27-29)

(1) “너희는 모두 걸려 넘어질 것이다.”의 의미

(2) 베드로의 영적 우월감/교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장담하였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마르 14,30-31)

(1) 베드로의 문제는 고집과 자만(교만)이다

(2) 어떻게 교만을 극복할 수 있을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네가 돌아오거든 네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루카 22,31-32)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갈 준비도 되어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루카 22,33)

겟세마니에서의 기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갔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앞으로 조금 나아가 땅에 엎어지시어, 하실 수만 있으면 그 시간이 당신을 비켜 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르 14,32-35)

1. 내적 번민과 고뇌 속에 쓰러지셨던 예수님

(1)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루카 22,44)

혈한증(hematidrosis)

(2) 겟세마니 = 가트세마네(גֶּתְשֵׁמֶנִי) : “기름 짜는 곳”

2. 예수님이 세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심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깨어 있어라.”(마르 14,34)

그리고 나서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하시고.(마르 14,37-38)

○ “시몬아 자고 있느냐?”의 의미

3. 예수님의 기도

“아빠, 파테르!(Ἰησοῦς ὁ πατήρ) 당신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마르 14,36)

(1) ‘아빠’로 시작된 기도

(2) ‘내 뜻(=예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되고 있음

(3) 세 번이나 반복해서 고난의 잔을 치워달라고 청하심

4.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그렇게 힘들어하셨는가?

- (1)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했기에? ---→ 틀린 대답
- (2) 아버지와 단절을 두려워했기에? ---→ 맞는 대답
 - 예수님 죽음의 특징 : 저주 받은 존재, 죄 자체가 되어 죽는 것임
- (3) 악마의 유혹을 받으면서 더욱 변민하시고 공포에 사로 잡혀 계셨다

5. 겻세마니 기도의 영성

- (1) '아버지의 뜻'과 '내 뜻'(예수님의 뜻)의 대립과 순명
- (2)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는 온전한 순종과 자아 포기에서 나오는 말이다
- (3)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는 영혼의 고뇌를 실컷 맛본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 “이제 되었다. 시간이 되어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마르 14,41-42)

붙들리시어 연행되심

예수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열두 제자의 하나인 유다가 나타났다. 그와 함께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떼지어 왔다. 그런데 배반자는 그들과 미리 암호를 짜고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붙잡아서 놓치지 말고 끌고 가라." 하고 일러두었던 것이다. 그가 예수께 다가 와서 "선생님!" 하고 인사하면서 입을 맞추자 무리가 달려들어 예수를 붙잡았다.(마르 14,43-45)

1. 배반의 입맞춤

- (1) 유다는 왜 열정적이고 시간이 걸리는 입맞춤을 예수님께 했는가?
- (2) 예수님이 붙들렸을 당시 겻세마니 동산의 상황
- (3) 유다의 배반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조용히 붙잡을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2. 칼을 휘두른 제자

그 때 예수님과 함께 서 있던 사람 중 하나가 칼을 빼어 대사제의 종의 깃발을 쳐서 잘라버렸다.(마르 14,47)

(1) 제자들 중 하나가 대사제 종의 오른쪽 귓불을 잘라버림

귀: 오우스(οὖς)

귓불: 오타리온(ὠτόριον)

(2) 제자들 중 하나는 구체적으로 베드로임

(3) 칼을 휘둘러 상대의 오른쪽 귓바퀴를 자르려면

(4) 베드로가 칼이 아니라 단도를 사용했다

3.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

제자들은 모두 그분을 버리고 도망갔다. 어떤 젊은이가 알몸에 삼베를 두른 채 그분을 따라갔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삼베를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다.(마르 14,51-52)

(1)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은 누구인가?

(2) 사건의 재구성(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이의 견해)

대사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심

1. 대사제(+ 산헤드린) 앞에서 재판을 받으심

그들은 예수님을 대사제에게 끌고 갔다. 그러자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모두 모여 왔다. 베드로는 떨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의 저택 안뜰까지 들어가, 시종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수석 사제들과 온 최고 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증언을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사실 많은 사람이 그분께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그 증언들이 서로 들어맞지 않았던 것이다. 더러는 나서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저자가, ‘나는 사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마르 14,53-59)

(1)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재판이 아니라 진리를 죽이기 위한 재판

☞ 대사제의 유다 법정이 법 규정을 지키지 않음

(2) 유다 법정의 재판 진행방식

(3) 예수님이 성전파괴를 예고했다는 증인들의 증언은 왜 거짓증언인가?

그러자 대사제가 한가운데로 나서서 예수님께,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이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 된 일리오?” 하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입을 다무신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자 대사제가 자기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도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단죄하였다.(마르 14,60-64)

2. 시몬 베드로의 배반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사제의 하녀 하나가 와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그를 찬찬히 살피면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요?”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겠소.” 하고 부인하였다. 그가 바깥뜰로 나가자 닭이 울었다. 그 하녀가 베드로를 보면서 곁에 서 있는 이들에게 다시,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예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또 부인하였다. 그런데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이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당신은 갈릴래아 사람이니 그들과 한패임에 틀림 없소.”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기 시작하였다.(마르 14,66-72)

- (1) 세 단계에 걸쳐서 이뤄진 베드로의 배반
- (2) 왜 세 번째 배반에서 베드로는 저주와 맹세까지 하게 되었는가?
- (3) 무엇이 문제이기에 이렇게 다른 말을 하게 되었는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마르 8,29)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오.”(마르 14,71)

- (4) 베드로의 배반이 모든 복음서들 안에 나오게 된 사연
- (5)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회개의 눈물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기 시작하였다.(마르 14,66-72)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하고 말하였다. 그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닭이 울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루카 22,60-62)

- (6) 베드로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요소들
 - ① 베드로가 배반한 순간 예수님이 자애로운 눈길로 쳐다봐 주심
 - ②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바치셨던 기도를 베드로가 기억함